

## 경남 구조조정 사업장, “끝장을 보자”

### 구조조정 분쇄, 생존권 사수 금속 경남 결의대회 ... “일자리 위원장인 대통령, 구조조정 절규 외면”

생존권이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6월 4일 경남도청 안 진입로에서 ‘구조조정 분쇄, 노동자 생존권 사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경남도청 안에서 여는 첫 집회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50여 개 사업장 가운데 20여 개 사업장이 물량감소 등의 이유로 부분 휴업 등을 진행 중이며, 세 곳의 사업장은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이 벌어지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특히 지난 2월과 5월 일방 희망퇴직을 시행한 뒤 추가로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부당휴업을 강행했다.

이성배 금속노조 경남지부 두산중공업지회장은 투쟁사에서 “사측은 두 차례 희망퇴직으로 900여 명을 길거리로 쫓아냈고, 휴업을 강제하고 있다”라며 “사측은 공장을 지킨 노동자를 저성과자와 유휴인력이라 낙인 찍었다. 경영을 망친 박정원, 박지원 일가야말로 저성과자이자 유휴인력”이라고 규탄했다.

STX조선 사측은 노동조합과 5월 31일자로 2년 무급휴직을 종료하기로 한 합의를 깨고 무급휴직 연장을 일방통보했다. STX조선지회는 6월 1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장섭 STX조선지회장은 투쟁사를 통해



“사측은 2년 전 무급휴직과 임금 40%를 삭감했다. 사측인 또 무급휴직을 강요한다”라며 “정부는 고용유지를 하며 일자리를 만들겠다는데 대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있는 일자리를 없애며 정부 안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사천항공산업단지 노동자들은 코로나 19 사태로 하늘길이 막혀 생산 중단 직격탄을 맞았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휴업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지만, 무노조 사업장 노동자들은 속수무책으로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항공 지상조업 등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선정했지만, 항공제조업은 대상에서 제외해 고용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최진영 아스트지회장은 “경남도가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부르는 항공우주산업은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을 참고 견딘 노동자들의 기술력으로 성장했다”라며 “항공우주산업이 미래 먹을거리라고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20년 동안 쌓은 탑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며 우려를 전했다. 최진영 지회

장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천항공산업단의 항공제조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속히 지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대회사에서 “STX조선 동지들은 2년 동안 뼈를 깎는 무급휴직을 감내했고, 생계의 어려움 속에서 정상화를 바라

리며 버텼다. 문재인 정부와 김경수 도지사, 산업은행은 무엇을 했냐”라고 분노했다. 김일식 수석부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이다. 있는 일자리를 지켜달라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용화 수석부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노동자의 무기는 파업이다. 8월 중순 9월 초에 대공장 사업장부터 작은 사업장까지 18만 금속노조가 쟁의권을 획득해 총파업으로 정부와 맞짱 뜰 것”이라 밝혔다. 김용화 수석은 “18만이 함께하는 투쟁으로 코로나 19 위기를 악용한 구조조정을 반드시 저지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투쟁에 노조가 앞장서겠다”라고 결의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STX조선지회 전체 조합원과 각 지회 확대간부, 지역 연대단체 등 12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STX조선지회는 6월 5일 경상남도 노동조합 등이 함께 여는 ‘경남조선발전민관협의회’ 개최를 앞두고 대회가 끝난 뒤 도청에서 노숙농성을 벌였다.

# “금속노조와 함께 내 삶을 케어한다”

금속 서울지부 LG케어솔루션지회 설립 ... 김정원 지회장, “끝까지 가겠다. 응원해달라”

LG케어솔루션 노동자들이 ‘가짜 개인사업자’가 아닌 ‘당당한 노동자’임을 선언하며 금속노조 조합원으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LG케어솔루션지회가 6월 6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설립 총회와 출범식’을 열었다.



지회 출범식에서 노동자들은 ‘LG케어솔루션 노동자 선언’을 통해 “하이엠솔루텍의 노동자이고, 금속노조 조합원이다”라고 선언했다. 조합원들은 회사의 불합리한 요구에 맞서 싸우겠다고 결의했다.

LG케어솔루션지회는 이날 총회에서 지회 설립 경과보고를 하고 지회 규칙을 제정한 뒤 임원을 선출했다. 지회는 임원으로 김정원 지회장과 김진희 수석부지회장, 문준호 사무장을 비롯해 10개 지역을 대표하는 부지회장을 선출했다.

김정원 지회장은 취임사에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 뒤에 많이 응해주고 믿어달라”라고 결의를 밝혔다. 김정원 지회장은 앞으로 조합원 확대와 단체교섭 준비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LG케어솔루션지회 노동자들을 금속노조에서 맞이하게 돼 영광이다”라고 인사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하나의 노조다. 조합원이 단 한 명인 지회가 있고,

한 명의 노동자를 위해 단체협약을 쟁취했다. 이것이 바로 금속노조다”라고 노조의 정체성을 소개했다.

“우리는 금속노조 조합원이다”

김호규 위원장은 “민주노조 역사에서 여성 노동자는 반드시 승리했다. 시간이 좀 걸리고 어려움을 만났지만 반드시 승리했다. 금속노조가 늘 든든한 뒷배가 되겠다”라고 약속했다.

박경선 금속노조 서울지부장은 격려사에서 “민주노조인 금속노조는 언제나 조합원을 중심으로 결정하고 행동한다. 서울지부는 지회 조합원을 확대하고, LG그룹에서 민주노조 깃발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결의했다.

이날 지회 출범식에 노조 자동차 판매연대대회와 서울지부 동부지역 지회, LG전자지회, 민주노총 희망연대노조 LG 헬로비전 비정규직지

부 등이 참석해 지회 설립을 축하하며 연대투쟁을 약속했다.

LG전자가 ‘케어솔루션 매니저’라 부르는 LG케어솔루션 노동자는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의류 관리기, 전자레인지 등 LG전자 렌털 가전제품을 유지·관리하는 노동자다.

회사는 LG케어솔루션 지원 자격을 ‘차량을 소지한 여성’이라고 제한한다. 이 여성 노동자들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해 일한다. 그러나 회사는 유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회사는 렌털 가전 유지 관리 업무 외에 영업을 강요한다. 가정집을 방문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평일 저녁과 주말 근무가 많다. 조합원들은 수당은커녕 기본급도 없이 100% 건당 수수료를 받는다.

2019년 10월 엘지전자 직수 정수기 단열재에 곰팡이가 피는 현상이 발생했다. 회사는 문제 부품을 교체하면서 ‘케어솔루션 매니저’들에게 건당 수수료로 3천 원을 지급했다. 노동자들이 반발하자 회사는 1만 원으로 수수료를 인상했지만, 이 사건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LG케어솔루션지회는 지난 5월 27일 하이엠솔루텍에 금속노조 가입 사실을 통보하며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했다.